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아트 마스크 융합 디자인

박리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예술학과

Art Mask Converged Design Based on an Expression Method of Cubism

Li-La Park

Dept. of Fashion and Arts, Graduated School of Arts in Chung-Ang University

요약 현대의 아트메이크업은 미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의 원초적 욕망이나 욕구의 논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성화·차별화의 추세에 따라 폭넓게 전개되어지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needs)에 맞게 다양하게 융합·접목되어지고 있다. 20세기 미술사조의 중심이 되는 입체주의는 아트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있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소재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아트메이크업에 융합시켜 아트마스크에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발상과 표현영역을 창출해내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인터넷 자료, 전문서적 등을 토대로 입체주의와 아트메이크업에 대한 고찰 후,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크게 복수시점, 형태의 분할, 콜라주로 나누어 피카소의 작품을 모티브로 아트마스크에 융합 디자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입체주의 표현기법이 아트메이크업에도 적용 가능하게 나타났으며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융합 디자인을 도출해내어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 이에 따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며 본 연구가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주제어** : 융합, 입체주의, 피카소, 아트메이크업, 아트마스크

Abstract Contemporary art make-up is being widely developed in line with the trends of individualization and differentiation departing from basic desires or logical thinking about the desires of human beings who ultimately pursue beauty and experiencing diversifie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befitting customer needs. Cubism that has been playing a central role at the center of art history in the 20th century can act as a good material based on creativity with regard to expression of the art make-up. In this regard, the study was focused on creating new concepts of design and novel areas of expression by combining expressive methods of cubism with art make-up to suggest an art mask. As for a method of the study, cubism and art make-up were examined based on preceding studies, Internet data and technical books, and the expression method of cubism was divided into plural points of view, partition of shape and collage and motivated the works of Picasso for the purpose of art mask-converged desig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out that the expression method of cubism was applicable to the art make-up, and creative art make-up converged design could be generated to make a suggestion. In this regard,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will be facilitated and that this study can be instrumental in developing art make-up design.

• **Key Words** : Convergence, Cubism, Picasso, Art make-up, Art mask

*Corresponding Author : 박리라(dalki2722@hanmail.net)

Received March 9, 2017

Revised April 7, 2017

Accepted April 20, 2017

Published April 28, 2017

1. 서론

1.1 연구목적

지금 이 시대의 사회는 각종 매스 미디어의 보급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매체에 의한 정보전달은 대중을 자극하여 고조시키기도 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서양미술에 전면적 혁신을 가져온 입체주의 또한 매스 미디어의 보급으로 건축,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영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폭넓게 융합되어 접근되어지고 있다. 융합산업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며, 기술·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제3의 산업 등장 및 신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1]. 또한 전통 산업을 부활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한 해결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2].

입체주의는 기존의 양식에서 벗어나 창조적 가치를 높이고 활동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에서 아트메이크업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아트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있어 폭넓은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규리[3]는 입체주의적 콜라주 특성을 응용하여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하였으며 이경미[4]는 Photoshop을 이용하여 피카소 큐비즘적 표현을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하였다. 최은화[5]는 콜라주 기법의 다양성, 무채색의 변용, 탈 구성면 관점에서 아트메이크업 분석, 작품 제작 등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영역이 인체에 제한되어 있었으며 아트마스크에 제작된 사례는 없었다. 아트마스크는 아트메이크업의 제안 및 창의적 표현영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종 페스티벌이나 콘테스트에서 하나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점차 중요시되며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며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디자인 발상과 새로운 표현영역을 새로이 조명해보고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www.daum.net>)와 선행연구, 전문서적 등을 토대로 입체주의와 아트메이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창의적 발상이 돋보이는 아트메이크업에 융합시켜 총 6작품 제작하였다. 조형적으로 제작된 아트마

스크에 작품 제작함으로써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디자인 발상과 다양한 표현영역을 창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입체주의의 개념 및 시대적 특성

입체주의(cubism)는 20세기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술 혁신 운동으로 1907년부터 1914년 사이에 파리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파급된 미술양식이다.

입체주의(cubism)의 큐브(cube)란 정육면체라는 뜻으로 1908년 브라크의 <레스타크의 풍경>이라는 연작을 본 어느 비평가가 조그만 입체덩어리(cube)라고 비평한 데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입체파는 세잔느의 회화가 추구한 조형적인 방법에 근거를 두고 출발하여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들은 모두 전통적인 원근화법과 삼차원적인 환영을 버리고 이를 더 훨씬 얇은 회화적 공간으로 대체시켰으며 단단한 형태들의 집합으로 배열하여 새로운 구성으로 표현했다[6]. 파리에서 시작된 입체주의는 유럽 전체, 심지어 러시아 회화까지 파급되어 나갔다. 전 유럽에서 수많은 작가들이 이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프랑스에서 발원한 입체주의를 기초로 새로운 양식들을 이끌어냈다[7].

입체주의를 시대적 흐름으로 나누어보면 초기 입체주의(1907-09), 분석적 입체주의(1910-12), 종합적 입체주의(1913-14) 3단계로 전개된다.

2.1.1 초기 입체주의

초기 입체주의는 기하학적인 시각을 받아들이는 세잔느의 영향 아래 ‘세잔느풍의 입체주의’라고도 한다.

“모든 물체는 원기둥, 원 축, 구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원리를 수용한 세잔느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로 여기서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을 세잔느의 이론을 심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대상의 자연적 형태를 요약, 단순화시켰으며, 1점 원근시점이 아닌 복수시점을 이용해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를 화면에 구축[4]하였다.

2.1.2 분석적 입체주의

피카소와 브라크 등의 대표적인 입체주의 화가들은

대상을 다시점으로 인식하였고 화면의 평면화, 빛의 평등한 분산, 주제의 일관성 등으로 그 실천적 성과가 더욱 견고해졌다[8]. 대상은 완전히 기하학적인 단위로 해체되어 다시 화면 위에서 재구성 되었으며 색채는 단순해졌으며 명도는 낮아졌다. 화면은 입체감이 나타나지 않으며, 대상의 형태를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9].

2.1.3 종합적 입체주의

종합적 입체주의에는 지금까지 배제되었던 색채가 다시 사용되어 평면적인 색면 구성과 사실적인 대상 또는 화면에 악보, 신문지, 벽지 등의 인쇄물을 붙이는 콜라주(college), 파피에 콜레(papiercolle)기법을 사용하는 시대가 형성되었다[7]. 이러한 표현기법을 통하여 공간적인 깊이감, 물체의 질감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회화가 잃어버린 구체적인 이미지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더욱 풍부한 표현의지를 표출하는 공간적인 조형언어를 성립시켰다[10]. 피카소는 원근법과 명암법을 사용하던 과거 작가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상과 리얼리티를 재현해 내는 방법을 발명해 낸 것[11]이며 이러한 구성의 새로운 방법은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입체주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철[6]은 공간 구축 방식, 복수시점, 형태의 단편화와 분할로 나누었으며, 최은화[5]는 다시점, 재구성, 제한된 색채, 콜라주 기법으로 나누었다. 김성봉[8]은 다시점, 콜라주, 형태의 겹침, 선의 강조, 반복에 의한 리듬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나타난 복수시점, 형태의 분할, 콜라주 기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2 입체주의 표현기법

2.2.1 복수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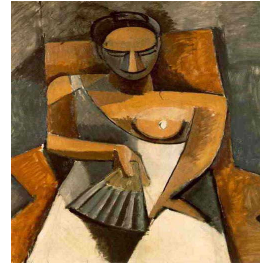
입체주의의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기법으로 한 화면에 다양한 측면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법이다.

입체파 작가들은 완전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특징들을 이지적으로 첨가시켰다. 정면, 위, 측면에서 본 모든 관점들을 병치함으로써 스스로 미적 가치를 지닌 그러나 동시에 대상을 분석적으로 묘사한 형식적인 구조에서 생긴 윤곽선을 결합함으로써 동시적인 관점에서 대상을 재현하였다[12]. [Fig. 1]은 하나의 대상이 2개의 면, 얼굴의 옆면과 정면이 동시에 나타나 있으며 등, 가슴, 머리를 동시에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시점을 통합하는 동시성[13]을 보여주며, [Fig. 2]는 여성의

몸에서 전체적인 비대칭 조형의 형태를 보여준다.



[Fig. 1] Les Demoiselles d'Avignon, 1907



[Fig. 2] Woman with Fan, 1908

2.2.2 형태의 분할

표현대상이 본질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기하학적인 형태와 면으로 분할하여 화면 안에 재구성되는 기법이다.

대상을 단순한 원통, 원추, 구 등 입방체인 형태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도형성은 도형의 가장 기본인 선에 의한 평면의 단순함과 원보다는 타원에 가까운 곡선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였다[14]. [Fig. 3], [Fig. 4]는 불규칙한 도형과 입방체, 여러 각도의 단면으로 분할되어 재구성되었다.



[Fig. 3] Girl with a Mandolin, 1910



[Fig. 4] Portrait of Ambroise Vollard,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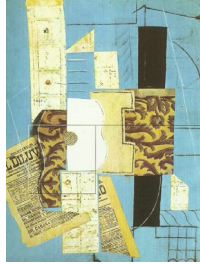
2.2.3 콜라주

콜라주(collage)란 본래 프랑스어 coller에서 유래된 말로 ‘붙이기’, ‘바르기’의 의미였으나 전용되어 화면에 오브제 일부를 붙여서 구성하는 회화 기법이다[15]. 콜라주는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를 통해 창조성과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공간적 요소의 장식과 더불어 예술의 다양한 영역적 혼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확장 또한 드러나 있다[16]. 피카소의 첫 번째 콜라주 작품인 [Fig. 5]는 돌레를 밧줄로 감아 놓았는데, 테이블 테

두리를 금속인 신주로 마감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11]이며, 인쇄된 천을 붙이고 유리잔, 담배 등의 사물을 그려 넣었다. [Fig. 6]은 콜라주의 일종인 파피에 콜레로 각종 인쇄물을 붙여 평면적 구성 속에 제작된 전통적인 회화 방식의 틀을 깬 작품이다.



[Fig. 5] Still life with a rattan chair, 1912



[Fig. 6] The Guitar, 1913

2.3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및 표현재료

아트메이크업은 단순히 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뷰티메이크업에서 나아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예술세계를 표출하며 점차 표현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아티스트의 예술적 감성이 갖든 메이크업으로 어떠한 형식과 틀에 구애받지 않아 감성시대의 대중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도모함으로써 현대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작품 형태로 활용되고 있으며,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7].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모든 재료는 아트메이크업에 표현가능하며 아티스트의 발상을 뒷받침해준다. 크게 수성물감과 유성물감으로 분류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다.

2.3.1 수성물감

수성물감은 물에 쉽게 지워지며 건조시 피부 당김과 균열이 있는 단점이 있으나 색의 표현 범위가 넓고 표현방법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수성물감에는 일반물감과 UV발광물감, 에어브러시물감이 있으며 UV발광물감은 블랙라이트(black light)에 의해 색이 형광으로 투명하게 발광된다. 독특하고 환상적인 색감 연출로 개성이 표출되는 뷰티메이크업에서도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UV발광물감을 사용하여 페인팅 할 때는 작업 전 이 물감에 대한 성질과 효과를 미리 확인하고 무대의 크기와 모델의 활동 범위, 블랙라이트가 작품에 반응되는 거리를 잘 파악하여 작업에 임해야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을 연출할 수 있다[18]. 에어브러시물감은 수성이긴하

나 액체타입으로 건과 콤프레사(compressor)를 통해 채색이 이루어진다. 브러시로 하는 작업에 비해 자연스러운 명암표현과 시간단축, 스텐실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활발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2.3.2 유성물감

유성물감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유분이 함유되어있어 부드러운 질감을 갖고 있다. 농도가 짙어 피부에 해가 되지 않는 소재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다. 건조가 되지 않아 쉽게 묻어나는 단점이 있으나 파우더나 새도우를 얹으면 매트한 효과를 주어 지속력과 발색력을 높일 수 있다.

오늘날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집중되어 다양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작품의 컨셉과 디자인의 흐름에 따라 표현의 방법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3. 작품제작

본 연구는 20세기 미술사조를 대표하는 입체주의에 대한 고찰 후, 표현기법에 따른 피카소 작품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피카소의 작품을 그래픽 모티브로 리디자인 한 후, 현대적 아트메이크업 표현기법을 융합시켜 아트 마스크 디자인에 적용. 제작하였다. 입체주의 표현기법을 복수시점, 형태의 분할, 콜라주로 나누었으며 각 2작품, 총 6작품 제작하였다. 작품 재료는 아트메이크업의 주재료이며 누구나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수성물감과 유성물감을 사용하였다.






<Table 1> Comprehensive analysis of production

| Expression technique | Motive | Material |
|-----------------------|--------|--------------------------------|
| Multiple viewpoint | | Oil paints |
| Segmentation of forms | | Water-based paints |
| Collage | | Water-based paints, Yarn, Rope |

3.1 작품 I

작품 I 은 입체주의의 복수시점 표현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피카소의 <아비뇰의 여인들>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여인들의 거처에 왜곡된 얼굴을 뒤섞어 원근법의 기본원리를 위배시켜 한 화면에 각각 디자인하였으며 농도가 짙은 유성물감을 사용하여 두께감 있는 거친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였다.






<Table 2> Multiple viewpoint

| Motive | Work | |
|---|---|---|
|  |  |  |
| Color scheme |  |  |
| Material | Oil paints | |

3.2 작품 II

작품 II 은 입체주의의 형태의 분할 표현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피카소의 <만들린을 든 여자>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단순화된 여인의 얼굴과 기타의 형태를 해체하여 불규칙한 형태의 다양한 도형과 입방체, 세분화된 단면의 반복에 의한 구조로 각각 디자인하였다. 수성물감을 사용하였으며 유사한 톤으로 이루어진 배색의 조화로 서정적인 감성이 깃든 작품을 제작하였다.

<Table 3> Segmentation of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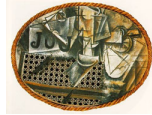




| Motive | Work | |
|---|---|---|
|  |  |  |
| Color scheme |  |  |
| Material | Water-based paints | |

3.3 작품 III

작품 III 은 입체주의의 콜라주 표현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피카소의 <등나무의자가 있는 정물>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 실로 짜인 오브제와 밧줄의 결합으로 의외성에 기반을 둔 작업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아트마스크의 이목구비를 그대로 살렸으며, 전체적인 색상배색과 구성방식에서 괴상하고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Table 4> Collage

| Motive | Work | |
|---|--|---|
|  |  |  |
| Color scheme |  |  |
| Material | Water-based paints, Yarn, Rope | |

4. 결론

현대사회의 우리는 독창성과 창의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내재된 잠재능력을 끌어주는 예술은 우리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며 현대인들의 분출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든 예술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미술과 메이크업은 그 속성이 유사하다. 최근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으로 표현되는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미술사조는 풍부한 소재가 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융합·접목되어지고 있다. 아트메이크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융합되어지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는 20세기 미술사조의 중심이 되는 입체주의를 복수시점, 형태의 분할, 콜라주 표현기법으로 나누어 피카소의 작품을 모티브로 아트마스크에 융합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입체주의의 복수시점, 형태의 분할, 콜라주 표현기법은 아트메이크업에 활용 가능한 주제로 나타났다.

둘째, 아트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수성물감, 유성물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입체주의 표현기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셋째, 입체주의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융합디자인을 아트마스크에 제작함으로써 창의적인 디자

인 발상과 새로운 표현영역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술과 메이크업분야가 융합·접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분야의 표현영역을 넓히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아트메이크업의 창조적인 디자인 발상을 위한 지침이라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와 연구가치가 크다. 또한 아트마스트에 작품 제작함으로써 새로운 표현영역을 창출해내어 아트메이크업의 전문화·다양화에 기여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향후 아트메이크업이 예술적·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연구와 교류가 지속적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트마스트가 하나의 아트메이크업 표현분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E. Y. Park, D. G. Kwag, "The Study on the Marke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for Convergen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99-106, 2015.
- [2] G. S. Ryu, "Development of Educational Model for ICT-based Convergence Exper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75-80, 2015.
- [3] G. R. Lee The study artmakeup apply a collage peculiarity of cubism, Hansu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4] K. M. Lee, A Study on Picasso-Cubistic Expression of Artistic Makeup Using Photoshop,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5] E. H. Choi, A Study of Art Makeup Designs to which Features of Cubism are Applied, Kwangju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6] C. Mo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ubism on the contemporary illustrations",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Design HONG-IK UNIVERSITY, Vol. 1, No. 5, pp. 133-161, 2000.
- [7] S. H. Kim, S. Y. Kim, S. M. Kim, "The Formative Ceramic Arts By Applying Expression of Cubism",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9, No. 12, pp. 622-629, 2009.
- [8] S. B. Kim, A Study on the Plastic Influence of Cubism on the Russian Constructivist Architecture, Ulsan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9.
- [9] Oh Kwang Soo, Western Modern Painting Company, Seoul: iljisa, 1976.
- [10] Golding John, Ji woo Hwang, Cubism, Paju: Youlhwadang, 1994.
- [11] B. O. Oh, Picasso and the Syntheyic Cubism,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55, No. 4, pp. 98-105, 2007.
- [12] G. M. Song, The Study on an influence of Cezanne to the Painting of Pocasso and Braque in Early Cubism(1907-09),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86.
- [13] Kyung Don Jin, A Concise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Seoul: Seow, 2000.
- [14] J. Y. Hong, Hair Art Us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ubism Painting : Focusing on Picasso Paintings, Seokyeong University, doctorat thesis, 2014.
- [15]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3XXX9300857>
- [16] A. K. Chun, A Study on the Formality and Symbolism in Korean Traditional Patterns, Hannam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2.
- [17] H. J. Song, E. T. Jeong, "A Study on the utilizing parody and pastiche in Contemporary Art Wor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01-212, 2015.
- [18] D. Y. Gang, "Korea makeup art", Seoul: Giindang, 1999.

저자소개

박 리 라(Li-La Park)

[정회원]



- 2016년 2월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예술학과(패션예술학석사)
- 2016년 3월 ~ 2017년 2월 : 명지전문대학교 뷰티아트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 미술, 메이크업